

2016학년도 흥이날철 부학회장 인사말

12학번 고경훈

안녕하십니까? 2016학년도 ‘흥이날철’ 부학회장을 맡은 철학과 12학번 고경훈입니다. 저는 올해 이대섭 학우를 도와 철학과를 이끌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하려는 것까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나에게 자격이 있을까 부터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수만 가지 고민과 주변사람들의 조언 등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섭 학우와 저는 하나의 과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와 대표로서 대외적으로는 과를 빛내고, 대내적으로는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고 더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올해 새로 철학과와 일원이 되시는 신입생 분들은, 부학회장이라는 타이틀이나 높은 학번에 벽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동네 친한 형, 오빠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또한 여러분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재미있는 2016년 철학과를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재학생분들 중에서 저를 아시고 친분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저와 함께 즐거운 1년을 보냈으면 합니다.

이번 인사말을 쓰면서 들어보니 올해 책자의 주제는 ‘울림’입니다. 이번 학년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가할 수 있는 흥이날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